

국내 항공우주산업 현황

개황

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 한해(94년)동안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산업 생산액은 총 8억4천만달러로 93년 7억4천7백만달러에 비해 11% 성장한 것으로 최종 집계되었다. 이것은 지난해의 증가율 21.4% 보다 많이 둔화된 것이다.

그 중에서 수출은 93년 1억6천8백만달러보다 23% 증가한 1억7천2백만달러로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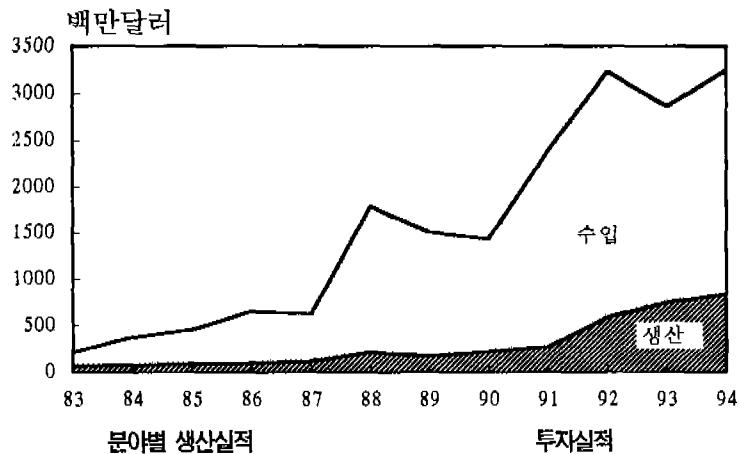
분야별 생산실적

항공기부문에서 총 6,724억원어치를 생산했으나, 우주부문에서는 23억원어치를 생산한데 그쳐 여전히 우주부문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.

분야별로는 기체분야에서 4,920억 원의 생산실적을 올려 전체 항공기부문 생산액의 대부분인 73.2%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되어 기체분야에 지나치게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.

한편 가장높은 증가율을 보인 보기분야는 422억원의 생산실적을 올려 전년의 108억원보다 75.5%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.

고정익 항공기와 회전익 항공기로 구분해 보면, 고정익 항공기는 총 4,201억원의 생산실적을 올려 전년대비 16.4%의 증가율을 보였고, 회전익 항공기는 2,523억원을 기록하-



	1992	1993	1994
기체	3,423	4,619	4,920
엔진	926	1,240	1,305
전자	140	32	72
보기	76	108	422
소재	8	4	5
계	4,573	6,003	6,724

	1992	1993	1994
토지/건물	509	1,150	1,131
시설장비	974	1,962	1,752
R&D	649	907	1,350
기타	26	28	137
계	2,158	4,047	4,370

여 전년대비 13%의 증가에 그쳤다.

투자실적

지난 한해동안 총 투자금액은 4,370억원으로 93년의 4,047억원보다 7.4%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. 그 중에서 우주분야 투자 비중이 28%로 93년의 0.5%보다 23% 증가했다.

인력

94년말 현재 항공우주분야 전체 인력은 항공기분야 10,486명, 우주분야 584명, 도합 11,070명으로 조사되었다. 이같은 수치는 93년의 7,808명보다 3,262명이나 증가했다. 그러나 이것은 추가로 조사대상에 포함된

항공기 정비사 2500여명을 제외하면 약 1,000여명이 증가한 수치이다. 한편 항공우주분야 인력은 '91년 5,550명, '92년 6,890명, '93년 7,808명 등 매년 천명정도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.

11,070명의 전체 인력중에서 연구개발 인력은 1,125명으로 전체의 10%에 불과하며, 기술직이 2,598명으로 전체의 약 23%를 차지하고 있다. 학력별 인력구조는 박사가 150명, 석사가 583명으로 석사 이상 전문인력이 743명이며 대졸인력은 총 3,108명으로 집계되었다.